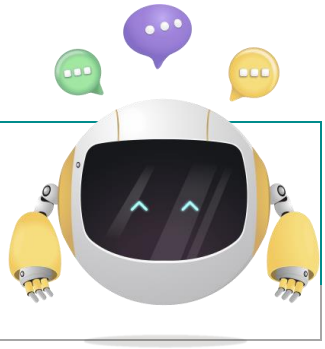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1.09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미국 FY2027년 우주군 예산 요청안 예상치 크게 상회

미국 우주 산업

미국 우주 정책과 주요 정부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수혜에 주목

- 트럼프 대통령은 FY2027년 국방예산을 현행보다 50% 증가한 1.5조 달러 요청. 우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Golden Dome 구축이 최우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 우주 우위 확보가 중요 전략임을 고려하면 FY27년 우주군 예산 또한 기존 전망치 대비 크게 증가 예상
- 우주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달 탐사와 같은 중요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음. '미국 우주 우위 확보'라는 명칭으로 지난 12월 18일에 발령된 행정명령은 미국 우주 산업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
- 주목할 점은 기존의 정부 조달 시스템을 바꿔서 민간 기업의 주도적 참여와 상업적 확장을 핵심 기조로 하고 있음. 2026년은 NASA의 CLPS(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 프로그램이 본 궤도에 오르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여러 중요 미션이 예정되어 있기에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

2026년 1월, 여전히 뜨거운 미국 우주 종목군

- 미국 우주 산업 관련 종목들이 12월에 이어 26년 1월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뜨거운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음
- 1) 스페이스X의 IPO 가시화에 따른 낙수효과, 2) 트럼프 대통령의 12월 18일 행정명령 발표에서 시사하고 있는 우주 관련 민간 기업 수혜, 3) 미국 우주군 예산 증가와 관련된 기대감, 4)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나 기술 진척에서 마일스톤 달성 혹은 대형 계약 체결 등이 주요인
- 우주 섹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요인이 단순 기대감에서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인 수주 획득과 실적 달성으로 전환에 주목

CES 2026 주요 기업 Keynote

- 엔비디아, AMD, 지멘스 CEO가 Keynote에서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AI가 텍스트 기반을 넘어 피지컬 AI와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 반도체 측면에서도 경쟁의 축이 단품 성능 경쟁에서 '랙 스케일 인프라' 구축 능력과 '제조·바이오 등 실물 경제와의 융합'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음

엔비디아 Keynote

- **베라 루빈:** 매년 AI 모델은 모델 규모 10배 성장, 토큰 수 5배씩 증가 하는 중. 이러한 수요를 매년 약 1.6배씩 늘어나는 트랜지스터 수만으로 못 따라가는 상황. 이러한 한계를 CPU, GPU, 스위치 등 6개 칩을 동시에 설계하는 '익스트림 코디자인(Extreme Co-design)' 전략을 통해 돌파. 루빈 GPU는 블랙웰 대비 5배의 연산 성능 달성. 100% 수냉식 쿨링(45도 온수로 냉각 가능)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 6% 개선. 베라 루빈은 이미 양산 중. 고객사 대상 본격 출하는 26년 하반기 예상

AMD Keynote

- **'요타 스케일' 시대**: 리사 수는 AI 활성 사용자 수가 10억 명에서 향후 50억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글로벌 컴퓨팅 인프라 수요가 2022년 제타플롭스(Zettaflops) 단위에서 향후 5년 내 10 요타플롭스(Yottaflops, 10,000배 증가) 수준으로 급증할 것임을 강조

지멘스 Keynote

-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 1) AI 네이티브 칩 설계(EDA 소프트웨어 가속), 2) 물리 기반 AI 시뮬레이션(디지털 트윈 실시간 구현), 3) AI 기반 적응형 제조(Adaptive Manufacturing)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 발표. 지멘스 EDA 소프트웨어에 엔비디아 GPU 적용 시 100배 이상의 속도 향상 기대. HD현대 선박 디지털 트윈 및 폭스콘의 AI 공장 구축에 양사 기술 스택이 핵심적으로 적용. 디지털 트윈은 단순 시각화가 아닌 물리 법칙을 학습한 AI가 예측 및 제어를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 공장 전체를 거대한 로봇처럼 운영하는 비전 제시

AI/플랫폼

- 엔비디아(NVDA.US): H200 중국 수출 불발 가능성
- 알파벳(GOOGL.US): 청소년 자살 소송 합의 도달
- 아마존(AMZN.US): 아마존 AI 쇼핑 툴, 외부 판매자(Retailers) 반발 직면
- 메타(META): 스마트 글래스 수요 초과로 생산 중단, Manus 인수 중단 위기
- 테슬라(TSLA.US):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알파마요 성공 가능성 부정
- 앤스로픽(비상장): 3500억 달러 가치로 100억 달러 투자 유치

우주/로봇

- 스페이스X(비상장): 베네수엘라 스타링크 지원
- 모빌아이(MBLY.US):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인수
- 보스턴다이내믹스(비상장): 아틀라스에 딥마인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결합

미국 태양광

인도, 인니, 라오스 AD/CVD 재차 연기

- 미국 태양광 시장의 2026년은 2025년 발표되었던 정책이 구체화되는 해
- 상무부는 동남아 4개국(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에 이어 인도/인니/라오스로 재차 우회하는 중국산 모듈에 AD/CVD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비발표가 2025년 10월에서 12월로 연기된 이후 2026년 초로 한차례 더 연기
- 청원인(미국 태양광 제조연합)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며 상무부는 특별한 거부의 이유가 없는 한 연기 요청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지속 지연

  2025년 4월 확정되었던 동남아 4개국 AD/CVD도 예비치 대비 대폭 상향조정했던 바 있어 이번에도 고율의 관세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FERC는 PJM에 코로케이션 관련 접속 규칙 개정 지시

-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통해 온사이트(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지속
- DOE(에너지부) 산하의 독립입법기관으로 송전을 관할하는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2025년 12월 말 PJM에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칙 개정을 명령.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의 단점인 비싼 요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미 2월부터 PJM에 현행 관세 규정을 정당화할 변경안을 요구한 바 있음
- FERC는 현재의 요금 체계는 코로케이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
- PJM은 요금 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송전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코로케이션 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 옵션을 신설할 예정
- 2026년 2월 16일까지 서비스 요금에 1차 의견서를 제출해야
- ERCOT은 PJM에 이어 두번째로 데이터센터가 밀집된 지역으로 역시 2025년 6월에 이미 온사이트 규제를 의무화한 바 있어

미국 우주 산업

미국 FY2027년 우주군 예산 요청안 예상치 크게 상회

미국 우주 정책과 주요 정부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수혜에 주목

- 트럼프 대통령은 FY2027년 국방예산을 현행보다 50% 증가한 1.5조 달러 요청. 우주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Golden Dome 구축이 최우선 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 우주 우위 확보가 중요 전략임을 고려하면 FY27년 우주군 예산 또한 기존 전망치 대비 크게 증가 예상
- 우주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달 탐사와 같은 중요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음. '미국 우주 우위 확보'라는 명칭으로 지난 12월 18일에 발령된 행정명령은 미국 우주 산업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
- 주목할 점은 기존의 정부 조달 시스템을 바꿔서 민간 기업의 주도적 참여와 상업적 확장을 핵심 기조로 하고 있음. 2026년은 NASA의 CLPS(Commercial Lunar Payload Services) 프로그램이 본 궤도에 오르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여러 중요 미션이 예정되어 있기에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

2026년 상반기 주요 관전 포인트

- 미국 우주 산업 관련하여 2026년 상반기 주요 관전 포인트는 크게 4가지. 1) 아마존의 저궤도 브로드밴드 위성망 구축 가속화로 저궤도 브로드밴드 시장이 진정한 2강 경쟁 구도로 재편될 수 있을지가 관건. 경쟁 구도 재편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 2) 트럼프 행정부의 FY27년 우주군 예산 요청안과 향후 5년 전망치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어떤 프로그램이 승자가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임. 3) 우주선의 AI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한 역량 확대와 이에 따른 상업적 영향. 4) 제러드 아이작먼 NASA 신임 국장 취임 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진행 가속화와 2027년 과학 예산 유지 여부. 2025년에는 NASA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관련 불확실성이 높았으나 2026년에 신임 국장 하에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026년 1월, 여전히 뜨거운 미국 우주 종목군

- 미국 우주 산업 관련 종목들이 12월에 이어 26년 1월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뜨거운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음
- 1) 스페이스X의 IPO 가시화에 따른 낙수효과, 2) 트럼프 대통령의 12월 18일 행정명령 발표에서 시사하고 있는 우주 관련 민간 기업 수혜, 3) 미국 우주군 예산 증가와 관련된 기대감, 4)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나 기술 진척에서 마일스톤 달성 혹은 대형 계약 체결 등이 주요인
- 우주 섹터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요인이 단순 기대감에서 개별 기업들의 구체적인 수주 획득과 실적 달성으로 전환에 주목

우주산업 세부 분야별 주목할 주요 종목

- 1)위성/부품 제조와 발사체 서비스 부문에서는 로켓랩(RKLB),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FLY), 레드와이어(RDW), 2) 위성통신은 AST스페이스모바일(ASTS), 에코스타(SATS), 3) 지구관측 부문은 플래닛 랩(PL), 블랙스카이(BKSY), 4) 우주 탐사 관련 종목은 인튜이티브 머신(LUNR), 파이어플라이(FLY) 등
- 최근 단기간 급등한 점과 테마주 특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높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 미국 정부의 우주 산업 지원 본격적 시작과 주요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수혜, 우주군 예산 증대, 스페이스X 관련 모멘텀 등을 고려하면 2026년에 미국 우주 산업은 주요 테마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CES 2026 주요 기업 Keynote

핵심 내용 정리

- 엔비디아, AMD, 지멘스 CEO가 Keynote에서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AI가 텍스트 기반을 넘어 피지컬 AI와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 반도체 측면에서도 경쟁의 축이 단품 성능 경쟁에서 '랙 스케일 인프라' 구축 능력과 '제조·바이오 등 실물 경제와의 융합'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음

엔비디아 Keynote

- **베라 루빈:** 매년 AI 모델은 모델 규모 10배 성장, 토큰 수 5배씩 증가 하는 중. 이러한 수요를 매년 약 1.6배씩 늘어나는 트랜지스터 수만으로 못 따라가는 상황. 이러한 한계를 CPU, GPU, 스위치 등 6개 칩을 동시에 설계하는 '익스트림 코디자인(Extreme Co-design)' 전략을 통해 돌파. 루빈 GPU는 블랙웰 대비 5배의 연산 성능 달성. 100% 수냉식 쿨링(45도 온수로 냉각 가능)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 6% 개선. 베라 루빈은 이미 양산 중. 고객사 대상 본격 출하는 26년 하반기 예상
- **메모리 병목 해소:** 모델이 작업을 하고 컨텍스트(참고하는 정보의 범위)를 참고하면서 KV Cache(중간 계산 결과 저장 값) 생김. 컨텍스트 병목은 곧 KV Cache의 병목. KV Cache의 저장/이동 병목을 Inference Context Memory Storage Platform(ICMS)으로 해결하겠다는 것. ICMS는 스토리지 프로세서 BlueField-4, 플래시 메모리, KV Cache를 매니징 하는 소프트웨어 Dynamo로 이뤄짐. 컨텍스트의 시급성에 따라 KV Cache가 HBM → 메모리 → 랙 SSD → 네트워크 SSD로 분할해서 저장/이동. 이는 SSD에 대한 신규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피지컬AI:** '카메라 입력 → 제어'까지 end to end로 학습한 추론형 자율주행 'Alpha Mayo' 런칭. 단순 센서 반응이 아니라 주행 상황을 '추론'하고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자율주행 모델. 벤츠와 협력하여 상용화 예정. 상용화 시점은 미국 26년 1분기, 유럽 2분기, 아시아 26년 하반기 예상

AMD Keynote

- **'요타 스케일' 시대**: 리사 수는 AI 활성 사용자 수가 10억 명에서 향후 50억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글로벌 컴퓨팅 인프라 수요가 2022년 제타플롭스(Zettaflops) 단위에서 향후 5년 내 10 요타플롭스(Yottaflops, 10,000배 증가) 수준으로 급증할 것임을 강조
- **오픈AI와의 견고한 협력:** 오픈AI의 그렉 브록만(Greg Brockman) CEO는 AI 기술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워크플로우(Agentic Workflows)'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막대한 컴퓨팅 수요 폭증을 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백그라운드에서 AI가 가치를 창출하는 1인 1 GPU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상호작용을 위한 초저지연(Low Latency)과 대규모 에이전트 처리를 위한 초고대역폭(High Throughput) 성능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분석. 특히 AMD의 차세대 랙 스케일 솔루션 'Helios'와 'MI455' 설계 과정에 오픈AI 엔지니어링 팀이 직접 참여해 리소스 밸런스를 최적화했음을 밝힘
- **Helios**: 랙 스케일 AI 솔루션 발표. 72개의 MI455 GPU와 차세대 Venice(베니스) CPU(Zen 6 코어), Pensando 네트워킹 칩을 수랭식으로 통합.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
- **MI455**: 차세대 AI 가속기 MI455 공개. 2nm 및 3nm 공정 적용. 3,200억 개 트랜지스터 집적, HBM4 메모리 탑재로 이전 세대 대비 추론 성능 최대 10배 향상 예상
- **피지컬AI:** 단순 언어 모델을 넘어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AI로의 진화를 제시함. 페이페이 리(Fei-Fei Li) 교수의 'World Labs'와 협력하여 이미지 몇 장만으로 상호작용 가능한 3D/4D 월드를 실시간 생성하는 'Marble' 모델을 시연함.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제너레이티브 바이오닉스(Generative Bionics)와 함께 촉각 센서(Tactile Skin)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Gene One'을 공개하며 물리적 상호작용 능력을 강조함. 우주 기업 Blue Origin과는 달 착륙선 시뮬레이션 및 비행 컴퓨터에 AMD Versal 2 칩을 적용하여 극한 환경에서의 엣지 컴퓨팅 능력을 입증

지멘스 Keynote

- **엔비디아와의 협력 강화:** 1) AI 네이티브 칩 설계(EDA 소프트웨어 가속), 2) 물리 기반 AI 시뮬레이션(디지털 트윈 실시간 구현), 3) AI 기반 적응형 제조(Adaptive Manufacturing) 등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협력 강화 발표. 지멘스 EDA 소프트웨어에 엔비디아 GPU 적용 시 100배 이상의 속도 향상 기대. HD현대 선박 디지털 트윈 및 폭스콘의 AI 공장 구축에 양사 기술 스택이 핵심적으로 적용. 디지털 트윈은 단순 시각화가 아닌 물리 법칙을 학습한 AI가 예측 및 제어를 수행하는 단계로 진입. 공장 전체를 거대한 로봇처럼 운영하는 비전 제시
-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깃허브(GitHub) 등 MS 플랫폼과 지멘스 도메인 지식 결합으로 엔지니어링 시간 80% 단축 등 생산성 혁신 사례(롤스로이스 등) 공유
- **메타와의 협력**: 레이밴 메타 스마트 글래스에 지멘스 AI를 탑재, 현장 작업자에게 핸즈프리 오디오 가이드 및 실시간 데이터 제공

AI/플랫폼

엔비디아(NVDA.US): H200 중국 수출 불발 가능성

- 중국 정부, 이번 주 자국 테크 기업들에 엔비디아 H200 칩 구매 계획 잠정 중단(Halt) 통보. 표면적 목적은 정부의 수입 허용 여부 및 조건 확정 전, 기업들의 선제적 재고 비축 방지. 중단 통보의 이면에는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건(중국의 원유 수입 차질 우려)이 이번 지시의 배경 중 하나로 추정됨
- 반면, 젠슨 황은 중국 내 H200 수요 매우 높으며 중국 정부의 수입 승인 기대한다고 언급. 12월 트럼프 발언 직후 중국 서버 제조사(Lenovo, Dell 등) 주문 급증. 상당수가 '취소/변경 불가(Non-refundable/modifiable)' 조건이며 향후 2년 치 물량 확보 희망. 또한 엔비디아는 중국 수요 대응 위해 TSMC에 H200 생산 CAPA 증대 요청한 상태
- 중국 정부는 'AI 개발(고성능 칩 필요)'과 '반도체 자립(국산 칩 사용)' 목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는 중. 따라서 H200 구매 시 국산 AI 칩을 일정 비율 의무 구매하는 방안 검토 중

알파벳(GOOGL.US): 청소년 자살 소송 합의 도달

- 구글과 AI 스타트업 Character.AI, 14세 소년(Sewell Setzer III)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소송에서 유가족 측과 잠정 합의 도달. 구체적 합의 금액은 비공개
- 이번 소송은 AI 챗봇의 설계적 결함과 제조물 책임을 묻는 첫 주요 케이스였으나, 판결 대신 합의로 종결되며 판례 남기는 것을 회피
- 2024년 2월, 14세 소년이 '왕좌의 게임' 캐릭터(대너리스 타르가르옌) 페르소나 챗봇과 장기간 대화 후 자살. 구글은 Character.AI 창업자들을 영입하고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상태라 공동 피고로 지목됨
- 이번 합의로 인해 콜로라도, 뉴욕 등지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들도 합의 수순 밟을 가능성 높을 것으로 예상

아마존(AMZN.US): 아마존 AI 쇼핑 툴, 외부 판매자(Retailers) 반발 직면

- 아마존이 테스트 중인 AI 쇼핑 기능 'Shop Direct'와 'Buy for Me'가 외부 온라인 쇼핑몰 데이터를 무단으로 긁어와(Scraping) 아마존 앱 내에서 판매를 유도해 논란. 해당 기능은 아마존 앱에서 AI 에이전트가 외부 사이트(DTC 브랜드 등)의 상품을 검색하고, 고객 대신 결제까지 대행해 주는 구조
- 셀러들은 "허락 없이 우리 물건을 왜 파냐"며 강력 항의. 특히 브랜드 가치 훼손, 고객 데이터 미확보, 재고 연동 오류 등의 문제 제기
- 아마존 입장은 "고객에게 더 많은 상품 선택권을 주고, 판매자에게는 새로운 매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해명. "원치 않으면 제외(Opt-out) 신청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기본 설정이 '무단 수집'이라 비판 받음

메타(META): 스마트 글래스 수요 초과로 생산 중단, Manus 인수 중단 위기

- Ray-Ban Display 글래스의 해외 시장(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출시 계획을 전격 보류. 이유는 미국 내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Unprecedented)"으로 폭발하며 재고 부족이 심화되었기 때문. 현재 대기 물량이 2026년까지 밀려있는 상황. 메타는 한정된 물량을 미국 시장 주문 처리에 우선 배정하기로 결정. 799달러라는 높은 가격 저항선에도 불구하고 초기 흥행 대성공 입증
- 메타가 20억 달러에 AI 에이전트 스타트업 Manus를 인수하려던 계획이 미국이 아닌 중국 규제 당국의 제동에 걸림. 중국 당국은 Manus가 베이징에서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과정에서 기술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했는지 집중 조사 중. 중국 당국은 이번 딜이 성사될 경우, 다른 중국 AI 스타트업들도 규제를 피해 해외로 도피(Relocation)하는 새로운 루트가 될 것을 우려하여 강력 대응 시사

테슬라(TSLA.US):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 알파마요 성공 가능성 부정

- CEO 일론 머스크가 CES에서 공개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AI 모델 Alpamayo에 대해 당장 Tesla FSD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 Legacy 완성차 업체들이 관련 하드웨어(카메라, AI 컴퓨터)를 대규모로 설계 및 적용하려면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며, 실질적인 경쟁 압박은 5~6년 후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전망. 자율주행 기술이 99% 수준까지 도달하는 건 쉽지만, 도로 위의 희귀하고 복잡한 상황(Long Tail)을 해결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며 Nvidia의 갈 길이 멀다고 암시

앤스로픽(비상장): 3500억 달러 가치로 100억 달러 투자 유치

- 앤스로픽이 기업가치 3,500억 달러를 인정받으며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텀시트(Term Sheet) 체결 확인
- 헤지펀드 Coatue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가 이번 라운드를 리드

우주/로봇

스페이스X(비상장): 베네수엘라 스타링크 지원

- 스타링크를 통해 미국 공습 및 마두로 정권 붕괴로 혼란에 빠진 베네수엘라 지역에 2월 3일까지 무료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공식 출시 전이라 정식 가입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로밍 기능을 통해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 활성/비활성 계정 모두에 서비스 크레딧 지급 중
- 다만, 물리적인 접속 단말기 공급 계획은 밝히지 않음. 기존 기기 소유자 위주로 제한적 사용 예상

모빌아이(MBLY.US): 휴머노이드 스타트업 인수

-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CES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Mentee Robotics를 9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공동 창업자 Amnon Shashua는 이를 Mobileye 3.0이라 칭하며, 사업 영역을 자동차 안전/자율주행에서 로봇 공학 및 물리적 AI 전반으로 확장하겠다고 선언
- 모빌아이가 보유한 AI 훈련 인프라와 자율주행 인지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식하여 자동차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로봇에 적용하려는 의도

보스턴다이내믹스(비상장): 아틀라스에 딥마인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 결합

- 현대차그룹 산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CES 2026에서 구글 딥마인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딥마인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Atlas에 이식하여,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는 진정한 범용 로봇 개발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
- 구글 딥마인드는 작년 발표한 로봇 특화 AI 모델 Gemini Robotics 기술을 제공. 로봇이 사물을 인지, 추론하고 도구를 사용하며 인간과 소통하는 두뇌 역할 담당할 것으로 예상
-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신형 Atlas는 56 자유도(Degrees of Freedom) 관절, 촉각 센서가 내장된 손, 360도 카메라 등을 탑재했으며 약 50kg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 보유. 신형 Atlas는 이미 생산 중이며, 조지아주 서배너에 위치한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에 투입될 예정. 올해부터 공장 내 테스트 시작, 2028년까지 부품 서열(Sequencing) 정리 등 실제 공정 작업에 배치 계획

미국 태양광

정책 모멘텀이 집중된 2026년

인도, 인니, 라오스 AD/CVD 재차 연기

- 미국 태양광 시장의 2026년은 2025년 발표되었던 정책이 구체화되는 해
- 상무부는 동남아 4개국(캄보디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에 이어 인도/인니/라오스로 재차 우회하는 중국산 모듈에 AD/CVD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비발표가 2025년 10월에서 12월로 연기된 이후 2026년 초로 한차례 더 연기
- 청원인(미국 태양광 제조연합)은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며 상무부는 특별한 거부의 이유가 없는 한 연기 요청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지속 지연
- 2025년 4월 확정되었던 동남아 4개국 AD/CVD도 예비치 대비 대폭 상향조정했던 바 있어 이번에도 고율의 관세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

Section 232과 PFE 기준도 발표 예정

- 2026년 AD/CVD 최종 판결 이외에도 Section 232와 OBBBA 내 PFE 기준 등 정책 발표가 예정
- 상무부는 2025년 7월 1일 Section 232에 근거한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의 조사를 개시. 270일(연장 불가) 규정에 따라 2026년 3월 28일까지 상무부 최종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대통령 최종 결정은 6월 하순 경으로 예상
- OBBBA는 기존 FEOC(해외우려기관)에서 PFE(금지외국기관)로 개념을 구체화. 수혜 대상이 PFE에 해당하거나 PFE로부터 어떠한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받은 경우 45X는 2027년부터, 45Y와 48E는 2025년 말 착공 시설부터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
- PFE는 특정외국기관(SFE) 또는 외국영향기관(FIE)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개되었으나 '실질적 지원'등 표현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재무부의 우선순위 가이던스 계획에 선정되었으 2026년 내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바이든 정부 시절 IRA에서 30D의 FEOC 조항을 확정하는데도 약 20개월이 소요된 바 있음

유틸리티 > 주택용 선호도 유지

- 미국 태양광 시장은 유틸리티용과 주택용이 양분되는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유틸리티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
- SEIA 3Q25 기준 미국 태양광 설치량은 11.7GW(YoY +20%, QoQ +49%)로 분기 최고치
- 유틸리티 9.7GW(YoY +26%), 주택용 1.1GW(-4%), 상업용 0.6GW(+9%), 커뮤니티 0.3GW(-21%)
- 주택용은 2025년 종료되는 25D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모듈과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
- 유틸리티는 빠른 납기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특징으로 미국 전력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태양광+ESS가 주목받을 것. 이미 3Q25 기준으로도 신규 전력 캐파의 85%를 차지

글로벌 전력기기/에너지

온사이트(BTM)에 재차 주목

FERC는 PJM에 코로케이션 관련 접속 규칙 개정 지시

- 연방 차원에서 규제를 통해 온사이트(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지속
- DOE(에너지부) 산하의 독립입법기관으로 송전을 관할하는 FERC(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2025년 12월 말 PJM에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칙 개정을 명령.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의 단점인 비싼 요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미 2월부터 PJM에 현행 관세 규정을 정당화할 변경안을 요구한 바 있음
- FERC는 현재의 요금 체계는 코로케이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
- PJM은 요금 서비스를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송전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코로케이션 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 옵션을 신설할 예정
- 2026년 2월 16일까지 서비스 요금에 1차 의견서를 제출해야
- ERCOT은 PJM에 이어 두번째로 데이터센터가 밀집된 지역으로 역시 2025년 6월에 이미 온사이트 규제를 의무화한 바 있어

2030년까지 BTM 프로젝트 비중은 38%

- 온사이트의 발전 비중은 아직 한자릿수 초반에 불과하나 전력망 정체(Grid lock) 현상이 지속되며 2026년에도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024~2025년 가동 대형 데이터센터는 AI 열풍 초기였던 2022~2023년에 이미 전력을 확보했으나 이후 전력 확보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며 미국 유틸리티와 전력 운영사에 접수된 부하 요청은 현재 약 1TW로 급증
- 개발사들이 다수의 유틸리티에 투기적으로 전력 요청을 하고 있어 그리드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 높아
- AEP는 2024년 중반 35GW의 부하 요청 중 68%가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공개한 바 있어
- 이미 전력망은 연결 요청부터 상업운전까지 약 5년이 소요
- 시장은 2030년 데이터센터의 BTM 프로젝트 비중이 38%될 것으로 전망
- 대표적인 온사이트 발전원에는 가스터빈(GT), 엔진(RICE), 연료전지
- 가장 흔하게 사용되던 가스터빈은 아직도 2년 이상의 리드타임이 소요
- 연료전지는 kw당 Capex 3,000~4,000달러로 가스터빈과 엔진 대비 현저히 높지만 비용이나 효율 보다도 납기가 가장 우선 되고 있어 가장 빠른 time-to-power(3~4개월)를 가진 연료전지의 장점 부각
- 대표 연료전지 사업자인 블룸에너지(BE.US) SOFC는 소재에 중국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이 없으며 단기 내 하이퍼스케일향 수주가 추가 공개될 공산이 큼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01월 0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01월 0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